

# 새 경영전략을 향한 CALS혁명의 파도

## 고조된 관심 반영한 입문서 속속 출간, 국내 실정 고찰은 부족

제2의 산업혁명이자 국가 또는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경영전략으로 지칭되는 CALS(통합물류 생산 및 지원 시스템: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에 대한 관심이 높다. 원자력 연구소, 국방부 등 정부기관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CALS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중앙일보가 주최, 지난 9월18일부터 열렸던 'CALS 95'는 CALS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고조된 CALS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최근 서점가에는 CALS 이론과 실재를 다룬 안내서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CALS 혁명》《CALS》《CALS전략과 EC》《21세기 정보화 산업혁명, CALS》등이 그것으로, 이들 책은 한결같이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낯선 개념인 CALS의 원리를 소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아직 낯선 개념인 CALS원리 소개

그렇다면 도대체 CALS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CALS는 방대한 서류나 각종 문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도면, 그래프, 이미지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고받게 만든 일종의 정보화사회의 산업개편 전략으로 보된다.

가령, 보잉 747기 한 대당 보유하고 있는 20만 페이지 이상의 기술교범, 원자력 발전소 1기당 4만 페이지 이상의 운영지침서 등 엄청난 물량의 정보가 문건형태로 수작업 처리되면 과다한 비용과 인력, 시간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의 오류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CALS를 적용할 경우 종이없는 업무수행이 가능해지며, 시스템의 토탈화·표준화만 이루어진다면 기업내 뿐만 아니라 기업간, 국가간의 정보교환이나 상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82년 미국 국무부가 군수지원전산화(Computer Aide Logistics Support) 차원에서 개발, 그 적용범위를 일반 산업계로 확대, 현재는 제품의 생산계획으로부터 폐기에 이르는 모든 활동을 디지털 정보기술의 통합으로 구현하는 산업화 전략을 의미하기에 이른 CALS가 국내에서 관심을 끌기 시

통합물류 생산과 지원시스템의

뜻을 지닌 CALS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경영전략으로

지칭되는 CALS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그 생소한 개념과

원리, 실재를 소개한 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으로

국내 실정을 깊이있게 반영한

책들의 출간을 기다린다.

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물론 국방부나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CALS를 도입하고자 한 노력이 없지 않았지만 CALS에 대한 인식이 민간부분까지 확대된 것은 1, 2년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CALS의 일천한 역사를 반영하듯 서점가에 나와 있는 CALS 관련도서들은 번역서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내용 또한 CALS의 개념과 원리를 소개하는 안내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1세기 정보와 산업혁명, CALS》(문원)는 국방대학원의 김철환 교수와 한국칼스위원회 위원장이며 현대정보기술고문인 김규수씨가 함께 펴낸 책으로, 우리나라에 CALS를 도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연구와 현장답사를 한 바 있는 CALS전문가들이 집필한 입문서여서 우선 눈길을 끈다. CALS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는 한편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를 밝힌다. 《CALS 혁명》(노형진·홍성찬 지음, 21세기 북스)은 지은이들의 다양한 기업실무 경험과 경영·정보통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입기에 있는 국내 실정에 맞게 CALS의 도입 전략과 그에 따른 기업의 조직과 사업내용의 변화까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기업체의 교육용 교재로 활용할 만하다.

### 번역서 위주의 입문서가 주류

《CALS 혁명》(스마트 치히로 지음, 장영렬 옮김, 사민서각) 역시 CALS에 대한



서점가에 선보인 CALS 관련서들.

초보자들의 궁금증을 채워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풀어쓴 책이다. CALS가 나오게 된 배경과 발달과정, 현재 진행중인 세계각국의 CALS 추진현황과 함께 21세기 멀티미디어 기업 사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CALS의 도입이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과도 직결됨을 보여준다.

《CALS》(중앙일보사)는 일본공업신문의 오쿠다 고지 기자와 통상산업성의 이시구로 노리히코 정보정책실장이 함께 쓴 책을 번역(이신우), 보완한 것이다. 1부에서는 CALS의 역사와 다양한 성격과 구성요소, CALS 구현이 기업에 안겨줄 장단점들, CALS 대응에 늦은 일본의 위기감과 CALS가 실현된 2015년의 가상 기업현실을 담고 있다. 2부에서는 일본의 산업정보 시스템이 안고 있는 과제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취해야 할 정부의 역할과 구체적 방침을 제시한다. 한국의 실정에 대한 정보도 보충했고 관련 약어들은 부록으로 정리 해설하고 있다. 《CALS 전략과 EC》(마쓰시마 가쓰모리 지음, 현대경제사회연구원)는 CALS전략이 지향하고 있는 전자교역(EC: Electronic Commerce)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이러한 CALS 관련 도서들은 CALS에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그 내용을 알 만한 자료는 없어 궁금증을 키워오던 독자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정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출간되어 있는 책들은 대부분이 CALS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해설하는 입

문서에 머물러 있어 다양한 층위의 독자들의 관심을 고루 채워주기에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아울러 번역서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국내상황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고찰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94년 2월 실질적인 CALS 산업 전략화에 착수하기 위해 설치된 한국정보통신협회내 CALS분과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이 분야 연구자가 아직 소수에 그치고 있고, CALS가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산업전략인 만큼 연구자들의 역력이 책을 집필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이제 겨우 도입단계인 CALS의 구현성과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독자층이 두터워지면 보다 다양하고 국내 실정을 깊이 있게 담은 책들이 출간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박남정 기자